

 부산국제금융진흥원	<h1>보도자료</h1>			
	배포	2024. 2. 7.(수)	보도	배포 즉시
담당부서	금융연구1실	실 장 박미애 (051-631-0291) 팀 장 백기웅 (051-631-0294), 안남현 (051-631-0282) 매니저 윤보람 (051-631-0284)		

## 부산국제금융진흥원, 해양금융 웨비나 개최 - 세계적인 연구·컨설팅 기관 Z/Yen Group과 공동연구 -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(원장 이명호)은 런던의 연구 컨설팅 기관인 Z/Yen사와 함께 작년 10월부터 부산의 해양금융중심지 활성화 방안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였음
  - ※ Z/Yen사는 금융의 발전을 통한 사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런던의 대표 Think-Tank로서 1994년부터 금융·기술 산업 전반에 대한 보고서를 꾸준히 발행 중임. 또한, GFCI(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), GGFI(Global Green Finance Index)와 같은 국제금융지수를 발표하는 등 세계 주요 국제금융도시들을 컨설팅하는 기관이기도 함
- 동 연구에서는 현재 국제해양금융중심지가 직면한 3대 과제로서
  - ① 해운사의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됨에 따른 자금조달 리스크 ② 국제해사기구(IMO)등 국제기구들의 탄소중립 등 규제 강화에 대한 대응 ③ 핀테크와 같은 신기술 등장과 해양 금융업무의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 분야에서의 국제합의표준(Commonly agreed standards) 도출 등을 지적하였음
- 이에 대응하여 해양금융중심지들은 ① 이해관계자의 참여하에 규제로드맵 등 산업 전체 차원의 전략 수립 ② 지속가능연계채권(SLB), Green Loan 등과 같은 새로운 금융상품의 개발 ③ 해양산업 전체 차원의 지식공유와 공동연구 수행을 통해 글로벌 스탠다드 개발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음
- 특히 동 보고서는 부산이 해양금융중심지로 성장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신기술과 새로운 금융상품 수용에서 진취적인 자세를 가져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음

-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은 동 연구의 최종보고를 겸한 「해양금융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 (Developments in Maritime Finance)」 웨비나를 오는 2월 14일 17시~18시(한국표준 시간) 온라인 및 오프라인으로 개최할 예정이며
  - 이번 웨비나에서는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토대로 ① 글로벌 해양금융중심지 고찰 ② 해양금융 파생상품 시장 ③ 해양금융에서의 핀테크 기술 활용 ④ 기존의 항만 규모와 활용도 ⑤ GFCI(Global Financial Centres Index) 지표 분석을 통한 해양금융중심지 성공 요인 분석 등 다양한 주제로 논의가 있을 예정임
  - ▶ 이를 통하여 해양산업의 세계적인 디지털화, 탈탄소화 전환 국면에서의 부산의 대응과 핀테크 및 파생금융 융합을 통한 부산형 해양금융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- 이번 웨비나에서는 본 연구를 총괄한 Z/Yen의 Simon Mills 연구원이 연구조사 전반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고, 한국해양대학교, 한국산업은행 등 해양금융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동 연구의 결과에 대한 의견과 부산의 해양금융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할 예정임
- 「해양금융의 새로운 국면과 도전(Developments in Maritime Finance)」 웨비나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2월 13일까지 부산국제금융진흥원 담당자 이메일(ybr@kbfrc.or.kr)로 신청할 수 있음